[UCI]I804:24011-200000239660

2010년 2월

석사학위논문

한국 서비스무역의 중국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우 뢰

한국 서비스무역의 중국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Korea Situation of the Entering Strategy to China for Service Trade

2010년 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우 뢰

한국 서비스무역의 중국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전의천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우 뢰

우뢰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2009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우 뢰

<목 차>

ABSTRACT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제 2 장 서비스무역의 이론적 고찰 ····· 4

제 1 절 서비스의 정의와 분류 ····· 4

제 2 절 서비스무역의 개념 및 중요성 ····· 8

1. 서비스무역의 개념 ····· 8

2. 서비스무역의 중요성 ····· 9

제 3 장 한국 서비스무역의 현황과 중국시장 진출 현황 ··· 10

제 1 절 한국 서비스시장의 현황 ····· 10

1. 시장개방의 현황 ····· 10

2. 시장개방의 내용 ····· 11

3. 개방정책 방향 ····· 14

제 2 절 한국 서비스무역의 현황 ····· 17

1. 한국 서비스 산업의 현황 ····· 17

2. 한국의 서비스 수출입 현황 ····· 20

제 3 절 한국 서비스무역 중국시장의 진출 현황 ····· 22

1. 한국의 산업별 진출 현황 ····· 22

2. 한국의 업종별 투자 현황 ····· 24

제 4 장 중국 서비스 시장의 진출전략……27

제 1 절 중국 서비스시장 현황 …… 27

1. 중국 서비스 시장의 특징 ……27

2. 중국 서비스 시장 부문별 현환……31

3. 중국 서비스 시장의 발전 전망……35

4. 서비스산업 개방의 영향 …… 38

제 2 절 한국 서비스 무역의 중국시장 진출전략…… 40

1. 서비스사웃소싱 기지로서의 중국 활용…… 41

2. 비즈니스서비스 중국 시장 진출 활성화……41

3. 중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45

제 5 장 요약 및 결론 …… 49

참고문헌 ……51

<표 차 례>

<표 2-1> 서비스의 정의 ····· 5
<표 2-2> 서비스의 분류 ····· 6
<표 2-3> UR에서의 서비스 분류·····7
<표 2-4> 서비스의 공급형태 ····· 8
<표 3-1> 외국인 직접투자의 산업별 분포····· 10
<표 3-2> 외국인 투자제한 기준·····15
<표 3-3> 한국의 경제활동별 GDP·····17
<표 3-4> 한국의 산업별 고용 현황····· 19
<표 3-5> 한국의 산업별 수출 현황····· 20
<표 3-6> 한국 대중국 투자 산업별 분포·····22
<표 3-7> 한국계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 현황·····23
<표 3-8> 서비스 업종별 대중국 투자 현황·····24
<표 3-9>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 ····· 25
<표 3-10>한국기업 대중국 투자의 지분율별 분포·····26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 Situation of the Entering Strategy to China for Service Trade

YU LEI
Advisor : Prof. Jun, Eui-Cheon, ph.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Chosen University

In recent years, national economy becoming wide in the importance of the service industry. The world countries shoot policies issue for boost up the competition of the service industry.

The globalized trade which is based on the trade freedom is getting outspread, and meanwhile, the globalization of the service industry is getting on, the condition of the service trade is increasing steadily.

Although the merchandise trade is still in surplu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service trade is in deficit. Therefore, it is becoming an inevitable subject that how to resolve the deficit of the service industry between the two countries. Compare to the developed countries, the service industry in Korea and China is still in a inferior position, but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this two countries are on a same level. Geographically and culturally, they are very close to each other.

Therefore, service industry have been greatly effect in order to accelerate the free service trade and lustrate the trade barrier.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Korea and China service trade has been improved step by

step, with the enhancement of the free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realization of the reassignment of the service trade resource.

In China, import regulations have been amended, such as non-tariffs barrier, to accelerate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It becomes an importance to improve Chinese commercial environment through concluding FTA.

Therefore, it becomes the point to which Korean service companies need to make an effort to enter Chinese market, such as exercising the mobilization of the outer resource of a service company. Korea and China should be hand in hand in investigating the continuance of the supplement of the industrial framework.

Keywords : Service industry, Trade liberalization, Non-customs barrier, FTA.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국제무역의 확대와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무역자유화의 대상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화무역의 자유화를 넘어 서비스무역에 있어서도 자유화의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무역의 경우 서비스의 특성상 그 형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또한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비스산업은 기술이 낮고 노동집약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서비스경제화가 진전되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또 제조업이 해외로 이전되어 산업공동화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거와 같이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이원적인 구분은 점차 의미가 퇴색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이기 때문에 기술이 낮고 노동집약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게 되었다.[1)]

그리고 서비스라는 무형상품의 특성상 그 교역의 성과를 수치화 한다는 것은 매우 난해한 작업이며 이로 인해 과거에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서비스무역에 대한 관심은 크지 못했다.

서비스무역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1990년대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은 2000년대 들어서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지역무역협정이 협상중이거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협정 건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의 증가와 함께 서비스무역의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각국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글로벌 무역환경과, 세계의 무역량에서 서비스무역의 비중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한국 또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흐름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있다.[2)]

현재 한국의 최대수출시장으로 성장한 중국과 함께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

1) 산업연구원, "서비스경제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e-KIET 산업경제정보」 제216호, 2004.7.30. p.7.
2) KOTRA, 『주요국의 서비스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Global Business Report 080017, 2008.6.5. 참조

동북아시아 지역은 미래의 세계경제를 이끌어갈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재화무역에 있어서는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서비스무역에 있어서는 양국 모두 무역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3)]

현재 한·중 양국도 세계적 추세인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며, 한·중간 FTA 체결에 대해서도 매우 큰 국가적 관심을 바탕으로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4)] 물론 한·중간 서비스 협정이나 FTA체결을 통한 양국간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상대국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접근성의 증가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양국간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이익은 국내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경쟁으로 전반적인 서비스산업의 효율성 증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제조업에 비해 취약한 서비스산업의 대세계 완전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한·중간의 서비스 협정이나 FTA체결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체질개선은 중국과 한국 모두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으로 유효할 것이다.[5)]

본 논문은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면서 한국 서비스무역의 중국전략 수립에 도움이될 객관적인 판단 근거와 접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더욱이 2000년대 들어 중국시장의 개방 확대와 인프라 개선, 제도적 규제 완화, 산업의 고도화 등으로 중국내 서비스무역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고, 글로벌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많은 외국기업들은 기존의 중국전략을 조정하고 새로운 서비스모델 발굴에 나서는 등 제각기 발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서비스무역이나 정부에 중국전략 수립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안정적인 서비스무역 중국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3) 김시중, "한중 경제관계의 평가와 한중 FTA전망", 「국제통상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7.12.

4) 한·중 경제통상협력 비전 공동연구 보고서(2005.11월 정상회담시 대외발표)상 17개 중점 협력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투자협력 분야로 ① 통상분쟁의 예방·축소, ② 전자무역 활성화, ③ 통관절차 간소화, ④ 법규 및 정책의 투명성 제고, ⑤ 투자환경 측면의 장애 해소 및 양국간 상호투자 촉진 둘째, 경제협력 분야로 ⑥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⑦ 2008 북경 올림픽 정보시스템 구축, ⑧ 유통-물류, ⑨ 서부대개발, ⑩ 중국 화력, 원자력 발전소 건설, ⑪ 동북 노후공업기지 진흥 사업, ⑫ 자동차, ⑬ 철강, ⑭ 북경-상해 고속철도 건설관리 사업, ⑮ 환경기술 공동개발, ⑯ 미래 첨단기술(NT/BT) ⑰ 농업투자 및 기술분야이다.

5) 박월라 등, "중국의 비즈니스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 보고서", 「통상정보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10.p.2.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방법을 기초로 하여 국제통계 수치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문헌으로는 국내외 전문서적과 학술논문, 학위논문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등 국내 유관기관의 자료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한국은행, 통계청 등의 경제부처 웹페이지 및 통계연감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을 소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서비스 및 서비스무역의 개념 중요성 등 이론에 대해서 고찰하고 점검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 서비스무역 및 서비스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 서비스무역의 중국시장 진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 4 장에서는 중국 서비스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 서비스무역의 중국 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하였다. 제 5 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결론을 맺는다.

제 2 장 서비스무역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서비스의 정의와 분류

서비스란 정확한 개념 정의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경제주체의 어떠한 행위, 노력 또는 이행을 말하며, 이는 공간적인 무체성,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 서비스품질의 이질성, 시간적인 소멸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6]. 따라서 서비스의 범위는 소위 WTO/GATS로 커버되는 '노동집약 서비스', WTO/TRIPS 협정으로 커버되는 '지식기반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3차 산업으로 부리는 서비스산업은 전통적으로 1차 산업과 2차 산업을 제외한 잔여분(residuals)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소득수준의 향상,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 등을 배경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금융, 물류, 사업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산업은 그 자체가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등장하는 소위 '경제의 서비스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서비스경제화'는 산업구조상으로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증대하는 현상으로 이는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산업의 가치사슬이 서비스기능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산업 활동 자체에 있어서 서비스 비중이 증대되는 현상이다.[7] 이러한 이유로 서비스산업은 개도국은 물론이고 선진국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 시장은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의 시대에서 이제는 서비스경쟁력의 시대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가산업의 관점에서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서비스영역이 중시되는 가치사슬의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방이 타방에 제공할 수 있는 행위

6) K. Douglas Hoffman and John E.G. Bateson, Essentials of Services Marketing : Concepts, Strategies & Cases, 2nd ed., South-Western, 2001, p. 4; John E.G. Bateson, Managing Services Marketing, 3rded., Dryden Press, 1995, p.9.

7) 최봉현, 김홍석, 조현승, 하봉찬, 『서비스산업의 미래와 경쟁전략』, 정책자료 2007-75, 산업연구원, 2007.12. p.37.

로, 물리적 제품에 연계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8] 한국의 '국민계정체계 2005'에서 정의하고 있는 서비스무역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서비스의 정의

구분	내용
운수서비스	모든 종류의 운송수단(해상, 항공, 육상 및 내륙수로, 파이프 라인 등)을 이용한 여객 및 재화의 수송, 선원을 포함한 운송수단의 임대, 기타 지원 및 보조서비스 등을 포괄
통신서비스	우편 및 송달서비스, 원격통신서비스(음성·영상·기타정보의 각종 형태의 송신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제공된 통신서비스관련 유지보수)
보험서비스	수출입재화에 대한 화물보험서비스, 기타 형태의 원수보험서비스(생명, 손해보험 포함)와 재보험 관련 서비스도 포함
건설서비스	건설서비스는 건설사와 그 직원이 일시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하는 건설 및 설치작업에 대한 수입을 포함. 그러나 해외자회사 또는 특정요건을 갖추어 이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 비법인 현지사무소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
금융서비스	신용장, 신용한도, 금융리스서비스, 외환거래, 소비자신용·기업신용서비스, 중개서비스, 증권인수. 서비스, 각종 헷지거래 계약 등에 관련된 커미션과 수수료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컴퓨터와 정보서비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발생하는 하드웨어 컨설팅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구축, 정보서비스(정보처리, 데이터베이스구축, 통신)와 컴퓨터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 등
기타사업서비스	상인, 상품중개인, 딜러, 대리인과 비거주자간에 수수되는 수수료를 의미
운용리스서비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계약과 승무원이 동반되지 않은 선박, 항공기와 철도차량, 컨테이너, 시추장비 등 수종 장비의 임대계약을 포함
개인·문화·오락서비스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에는 영화나 비디오 테이프 제작관련 서비스, 영화,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 음향 레코딩 제작 관련 서비스가 포함 됨. 기타 문화서비스, 도서관, 박물관 또는 기타 문화, 스포츠활동 등이 포함
여행서비스	1년 미만 방문기간 중에 획득한 재화 및 서비스를 대상. 유학 및 치료목적의 환자는 1년 기준에서 제외
정부서비스	대사관, 영사관, 군대 및 방위기관뿐 아니라 기타 공적기관(원조사절단, 해외주재의 정부운영 관광, 정보, 홍보사무소 등)이 주재하는 모든 거래를 포함.

자료 : KOTRA, 「주요국의 서비스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Global Business Report 08-017, 2008.6.5. pp.24~25.

한편, 일반상품의 유형성과 비교하여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서비스의 특성

8) 이창재 외,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4-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121.

은 무형성이다. 무형성 이외에 생산과 소비의 불가분성, 이질성 및 소멸성 혹은 저장불능성 등이 서비스의 주요 특성으로 자주 언급된다.[9)]

이렇게 무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분류는 시대의 변화와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라 해석이 다양하지만 이를 대표적인 학자들의 연구문헌에 나타난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서비스의 분류

학 자	분류기준	분 류	주요내용
엘프링	서비스가 제공하는 업무나 활동	생산자 서비스	중간재투입재적 요소 서비스 : 금융・보험, 부동산업, 사업 및 전문서비스업 등
		유통 서비스	유통 및 운송 관련 서비스 : 도・소매업, 운수업, 통신업
		개인 서비스	소비자 관련 서비스 : 음식 및 숙박업, 이・미용업, 가사서비스업 등
		사회 서비스	공공재적 서비스 : 공공행정・국방, 의료보험, 교육 등
그루벨과 워커	지출	소비자 서비스	소비자 구매서비스 (엘프링의 개인서비스) : 호텔, 금융・보험업, 이・미용업
		생산자 서비스	요소 및 중간투입서비스 : 회계, 광고, 정보・통신 등
		정부 서비스	공공재적 서비스 (엘프링의 사회서비스) : 교육, 의료, 보건, 국방, 치안 등
하타	매매대상	물적 서비스	물자매매수단 서비스 : 임대 및 리스, 오락・게임업
		인적 서비스	인간행위관련 서비스 : 가사서비스, 의료서비스, 이・미용업 등
		시스템적 서비스	조직화된 제도적 서비스 : 정보・통신업, 보험업 등
힐	영향을 미치는 대상	재화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중간투입성격 서비스 : 금융, 수리, 컨설팅 서비스 등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소비자・물리적・심리적 상태관련 서비스 : 여객운송, 의료, 교육, 통신 등

자료 : 김우규, “서비스무역과 그 유형”, 「무역상무연구」, 제1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2, p.683.

또한 서비스의 분류에 있어 최초의 다자간 서비스협상인 UR 협상에서는 서

9) 김영환, 『한·중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2. p.5.

비스를 12개 부문으로 나누고, 이들 12개 부문을 다시 155개의 세부문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 방법은 대체로 UN의 잠정중심생산물분류의 서비스업종에 대한 분류체계에 기초한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UR에서의 서비스 분류

분 야	하 위 분 류
사업서비스	전문직,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연구개발, 임대, 기타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우편, 통신, 시청각, 기타 서비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일반빌딩, 일반토목엔지니어링, 설치 및 조립,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 기타 서비스
유통서비스	위탁에이전트, 도매・소매 서비스
교육서비스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기타 교육서비스
환경서비스	하수, 폐기물, 위생 및 유사, 기타 서비스
금융서비스	보험 및 보험 관련, 은행 및 기타 금융, 기타 서비스
보건 및 사회서비스	병원, 기타 인간건강, 사회, 기타 서비스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호텔 및 레스토랑, 여행사 및 여행업, 여행가이드, 기타 서비스
오락,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유흥, 뉴스에이전시, 도서관・아카이브・박물관 등 문화서비스, 스포츠 및 여가, 기타 서비스
운송서비스	해상, 내수면, 항공, 우주, 철도, 도로, 관로, 운송지원서비스
기타 서비스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자료 : 김영환, 『한·중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2.p.7.

제 2 절 서비스무역의 개념 및 중요성

1. 서비스무역의 개념

서비스가 1970년대 이후 무역의 대상으로 받아 들여지기 시작하면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문제가 국제적으로 논의되었고 서비스와 서비스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서비스의 국제간 거래인 서비스무역이 어떠한 것인지는 GATT/UR에서 합의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GATS)' 상에 공급방식에 의한 4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명기하고 있다. GATS상에 나타난 서비스무역의 형태는 다음 <표 2-4>와 같이 각각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및 자연인의 주재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10]

<표 2-4> 서비스의 공급형태

공급자 주재	기 준	형 태
서비스 공급자가 회원국 영토내에 주재하지 않는 경우	다른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회원국의 영토내로 서비스가 인도됨	국경간 공급
	회원국의 영토밖에서,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게 서비스가 인도됨	해외소비
서비스 공급자가 회원국 영토내에 주재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공급자의 상업적 주재를 통해 서비스가 인도됨	상업적 주재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자연인으로써 주재하는 공급자에 의해 서비스가 인도됨	자연인의 주재

자료 : 김영환, 『한·중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2. p.9.

10) 김영환, 전게논문, p.9.

2.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

서비스산업은 산출 및 고용에서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낮은 생산성과 인적자원양성 체계의 미비 및 서비스 수지 적자의 확대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11]

즉,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는 달리 기술수준이 낮고 노동집약적이므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아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상품에 체화하여 제공되던 서비스가 점차 별도의 상품처럼 분리되어 독립적인 업체가 공급하게 되자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원거리 공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21세기에도 국민경제에 있어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 되어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자국의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경제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서비스경제 시대의 정착과 더불어 점증하고 있는 서비스무역의 중요성은[12] 첫째, 서비스무역은 세계 경제와 각국의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산업이다. 둘째, 서비스무역의 발전은 국민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셋째, 일국의 경제활동에 있어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 넷째, 서비스무역 확대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제조업 등 타 산업의 발전 또한 촉진시킨다. 다섯째, 서비스무역은 잉여노동력을 흡수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촉진한다. 여섯째, 특히 금융 및 보험 서비스 등은 투입 대비 산출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은 수준의 노하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전적인 산업을 크게 압도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민경제 발전의 촉매가 되고 있다. 일곱째, 국민경제가 선진화되어 갈수록 서비스 산업은 국가경제의 핵심적인 경제활동이 되고 있으며 서비스무역의 확대와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는 국가가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는데 발판이 되고 있다.

---

11)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정책적 지원방안", 『e-Kiet 산업경제정보』, 제386호(2008-12), 2008.3.12.p.2.

12) 성일석,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와 서비스 무역구조", 「무역학회지」, 제20권 1호, 한국무역학회, 1995, p.128.

제 3 장 한국 서비스무역의 현황과 중국시장 진출 현황

제 1 절 한국 서비스 시장의 현황

1. 시장개방의 현황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주로 제조업 성장과 함께 병행 또는 보완 발전되어 왔는데,[13] 대외교역의 확대에 따른 부수적 서비스의 발생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수요의 확대에 따라 성장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수출지향적 성장발전의 추구에 따라 제품시장의 대외개방이 비교적 꾸준하게 추진되어온 반면에 서비스산업은 상대적으로 대외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많이 받아 왔었다. 그렇지만,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한국이 OECD에 가입하면서부터 비교적 한꺼번에 많이 개방함으로써 IMF의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비운을 경험하기도 했었다.

한국은 1993년부터 '외국인투자 개방 5개년계획'을 세우고 이에 의해 개방을 허용해 왔는데, 서비스산업의 개방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산업의 상대적 개방속도 및 현황을 알 수 있는데 다음 <표 3-1>과 같이 도소매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분포에서 커다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표 3-1>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분포

구분	1994~98년	1999~2003년	2004~2008년
도소매 서비스업	37.3%	42.6%	71.1%
제조업	35.2%	30.6%	29.4%
농수산 광업	0.6%	0.15%	0.08%

자료 : 재정경제부, 외국인 투자동향, 2008.

13) 서비스 산업의 경제 기여도는 1990년에 49.5%를 기록했던 서비스 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잠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2007년에는 57.6%를 기록하였다.

한편, 한국의 서비스 시장개방은 분야별로 상당한 시차를 두고 진행된 것이 사실이지만 제품시장과는 달리 정책적 특징으로 시기적 구분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14]

2. 시장개방의 내용

서비스산업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서비스 시장을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중심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온 제조업이 투자의 부진, 생산비용의 증가, 설비의 해외이전 등 내외 여건의 악화로 성장엔진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해 감에 따라 한국에서도 서비스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2006년도 기준 전체 GDP의 5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도 GDP 대비 부가가치 생산비중은 27.8%로 서비스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15]

한편,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중간수요율[16]은 약 40%로 다른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금융 및 보험, 통신 및 방송,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등의 전산업에 대한 중간수요율이 높으며, 도소매, 운수 및 보관, 사업서비스 등은 제조업의 중간재로 활용되는 비율이 높다. 물류, 금융, 컨설팅, 엔지어링,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이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17] 따라서 이들 서비스 산업의 개방현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건설

건설[18]은 생산과 무역 모두에 걸쳐 한국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14) 예를 들면, 한국의 보험시장과 광고시장이 비교적 빠른 시기에 거의 완전히 개방되었고, 유통시장이 비교적 최근에 개방되었음은 사실이나 이러한 시장개방이 일관성 있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전략적인 고려를 하여 시장개방을 하였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15) 최봉현, 김홍석, 조현승, 하봉찬, 전게서, pp.78~80.
16) 중간수요율[(중간수요액/총수요액)×100]은 다른 부문의 생산에 중간재로 사용되는 정도를 말한다.
17) 삼성경제연구소,,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국제비교", 『SERI 경제포커스』 제187호, 2008.4.7.p.3.

건설부문은 대체로 한국이 비교적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 업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건설분야에 대한 자유화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19]. 첫째, 건설업은 先受注 後生産의 형태를 취한다. 둘째, 건설에 대한 수요는 변동이 심하다. 셋째, 건설물을 공급하는 건설업자 뿐만 아니라 건설물을 구매하는 발주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다. 넷째, 건설업의 진입장벽(barrierts to entry)은 높지 않다. 다섯째, 사회간접자본형성을 위한 정부의 公共건설공사는 그 규모 및 건설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발주자가 독점력을 행사하기 용이하며 공사가격의 결정방법, 공사계약의 세부사항, 공사대금의 지불방법 등에 관하여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여섯째, 해외건설공사는 국내공사보다 위험부담이 큰 반면에 공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이점이 있다.

그 동안 한국의 건설산업은 1960년대 이후 건설산업의 발전과 함께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최근에 국내경기의 침체 물량의 감소와 건설업체의 증가에 따른 치열한 수주 경쟁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유화·개방화에 따른 경쟁의 가속화, 과학과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산업환경의 변화는 한국 건설산업이 기존의 관행과 사업영역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2) 운송

해운을 포함하는 물류·운송 서비스분야에서 시장개방은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개방이 이루어지고 가속화되면서 관련 업종의 구조개편과 시장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무역의 대부분이 선박운송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해운산업은 운송 중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해운산업은 한 국가의 수출입 물동량을 수송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시장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국은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18) 건설의 범위는 좁은 의미의 건설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부문뿐만 아니라 기본설계, 상세설계 그리고 기획, 타당성 조사 등의 건설관련 엔지어링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한다.

19) 장의태, 『다자간 서비스협상과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국제화』, 정책연구 90-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0.10. pp.31~33.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은 해운산업과 이에 관련된 물류서비스의 열악성으로 말미암아 물류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국제경쟁력 약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0]

한국은 동북아 중심국가 추진을 위하여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으나 물류비용이 경쟁국에 비해 높아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물류분야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물류기업의 경쟁력은 그와 연관된 다른 기업과 산업으로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켜 사회 전체의 경제력을 키울 수 있으므로 기업의 생산성, 수익성 확보는 물류부문 경쟁력 확보에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한·중 무역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한·중 항로에 대한 컨테이너화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은 우선, 한국의 저성장 구조의 정착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이고 이러한 투자의 교역 물동량 및 환적물동량 창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중국의 경제성장과 해외투자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중간의 경제구조, 지리적 여건, 경제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기조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대외 개방에 대한 외부적 압력이 강화됨에 따라 한·중항로에서 제3국적 해운업체의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21]

따라서 한국의 21세기 물류산업 선지화를 위해서는 첫째, 첨단지능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고속화되고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완비하고, 셋째,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넷째, 고부가가치형 물류산업으로 육성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22]

3) 금융서비스

---

20) 오성동, 기성래, “해운산업과 관련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해운물류연구』,제39호, 한국해운물류학회, 2003.12. pp.29~49.

21) 이충배, 배창호, 양재훈, “한·중항로 개방에 따른 국적선사의 대응전략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4권 제2호, 한국항만경제학회, 2008.6. pp.297~298.

22) 문호성, “뉴 라운드 해운·물류 서비스 협상에 대한 논의와 시장개방에 대비한 운송업종의 경영효율성 비교 분석”, 『해운물류연구』, 제41호, 한국해운물류학회, 2004.6. p.26.

한국의 금융산업은 선진국의 금융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하며 OECD의 가입, WTO체제의 금융협상의 진전 등으로 개방화, 국제화가 진점됨에 따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WTO체제하에서의 금융서비스협상 진행에 의한 금융시장의 개방확대에 따라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화, 금리, 환율 등의 거시적 경제변수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23]

한국의 금융산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비은행 금융기관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장기채권시장과 같은 여타부문의 금융시장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지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산업정책의 수단으로서 자금배분을 위한 원천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결과로 부실채권이 큰 규모를 차지함에 따라 한국의 금융자유화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몇 가지 주요 서비스산업의 시장개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외에도 많은 서비스 부분이 OECD 가입 이후 시장개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국제경제질서의 세계화 추세와 다원화, 정보화 사회로의 의식이동에 의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오히려 서비스 산업의 시장개방을 통해 더 한층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24]

3. 개방정책 방향

최근 한국의 서비스 교역에 있어서 경쟁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지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비스 교역과 관련된 확실한 전략적 고려가 결여된 탓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제품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방자유화가 진행된 이래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는 분명하고도 일관된 정책목표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통상압력에

23) 조희영, "Uruguay Uound 금융서비스협상이 한국금융서비스개방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 『경영논총』, 제19호,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995.p.146.
24) 원삭희, 「서비스 운영관리」, 형설출판사, 1997. p.59.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책방향이 기조를 이루어 왔다.

특히, 통상압력에 기조를 대한 정부의 능동적 조치를 살펴보기 위해 외화도입법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의 현황과 기준을 살펴보면, 경제적 고려보다는 비경제적 고려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현제 적용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제한기준은 다음 <표 3-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을 고려한 것은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초기발전 단계의 산업에 속하는 사업들로 국민경제상 이익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직접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기준이 유일한 경제적 정책고려를 하여 만든 것이다. 즉, 제품시장의 통상압력에 대해 능동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기준이 서비스 산업의 교역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25]

<표 3-2> 외국인 투자제한 기준

경제적 고려	- 농어민의 생업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사업 - 초기발전단계의 산업
비경제적 고려	- 국가운영의 공익사업 - 보건위생 및 환경보전에 해가 되는 사업 -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사업 - 기타 공공기능적 성격이 강한 업종

자료 : 재정경제부, 외국인 투자동향, 2008.

따라서 현재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시장개방정책은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러한 상황은 전반적인 시장개방을 통하여 국내경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가져오기보다는 대내외적인 압력의 정도에 따라 개방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GATS 허용안을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주의정책이 바람직한 서비스 산업구조의 촉진이라는 수단으로 활용되지도 못하면서, 업종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5) 이성준, “한국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학회지」, 제25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0. p.58.

따라서 향후 서비스시장 개방정책이 국제규범의 강화와 함께 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고 하면, 시장개방을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서비스 시장개방 순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 들어와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서비스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향후의 성장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과 평가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경제사회시스템은 주로 제조업을 염두에 두고 장기간에 걸쳐 구축되고 정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26]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은 서비스산업을 미래의 경제발전을 담당할 중요한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인식의 전환이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 더불어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양대 축이라는 국민적 컨센서스를 정착시키고 이에 기초하여 경제사회시스템을 재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경제화의 흐름을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구분 없이 인력과 자본을 저부가가치 분야로부터 고부가가치 분야로 이동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지속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26) 산업연구원, "서비스경제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e-Kiet 산업경제정보』, 제216호(2004-37), 2004.7.30. p.8.

제 2 절 한국 서비스무역의 현황

1. 한국 서비스 산업의 현황

한국 서비스산업의 현황을 국민소득 부속표(2000년 기준)의 경제활동별 GDP 통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한국의 경제활동별 GDP(2007년기준) (단위:조원%)

항 목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연평균 성장률
농림어업	금액	23.4	24.7	25.0	25.3	24.4	23.1	25.3	25.4	25.1	25.3	0.27
	비중	4.8	4.6	4.3	4.2	3.8	3.5	3.6	3.5	3.3	3.2	
광업	금액	1.9	2.0	2.0	2.0	1.9	1.9	1.9	1.9	1.9	2.0	-0.36
	비중	0.4	0.4	0.4	0.3	0.3	0.3	0.3	0.3	0.3	0.2	
제조업	금액	106.2	129.3	151.2	154.5	166.2	175.4	194.9	208.7	226.4	241.0	6.92
	비중	21.8	24.2	26.1	25.7	25.9	26.5	28.1	28.9	29.8	30.2	
전기·가스·수도사업	금액	10.7	11.7	13.2	14.2	15.3	16.0	17.0	18.4	19.0	19.8	5.93
	비중	2.2	2.2	2.3	2.4	2.4	2.4	2.5	2.5	2.5	2.5	
건설업	금액	48.3	44.5	42.9	45.3	46.5	50.5	51.5	51.4	51.6	52.5	2.96
	비중	9.9	8.3	7.4	7.5	7.2	7.6	7.4	7.1	6.8	6.6	
서비스업	금액	247.2	263.4	279.6	293.1	316.1	321.0	327.2	338.2	352.4	369.2	4.07
	비중	50.7	49.4	48.3	48.8	49.2	48.4	47.1	46.8	46.3	46.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금액	44.4	51.4	55.6	58.1	61.3	59.6	59.5	60.7	62.8	65.0	2.30
	비중	9.1	9.6	9.6	9.7	9.5	9.0	8.6	8.4	8.3	8.1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액	26.8	30.3	36.1	41.5	45.3	47.5	50.8	53.3	55.7	58.7	7.22
	비중	5.5	5.7	6.2	6.9	7.1	7.2	7.3	7.4	7.3	7.4	
금융보험업	금액	34.0	34.6	35.3	38.2	46.6	46.9	46.2	48.4	50.9	56.2	7.11
	비중	7.0	6.5	6.1	6.4	7.3	7.1	6.7	6.7	6.7	7.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금액	62.3	64.2	68.1	68.4	71.7	73.3	74.7	77.2	80.2	83.1	2.90
	비중	12.8	12.0	11.8	11.4	11.2	11.1	10.8	10.7	10.5	10.4	
교육 서비스업	금액	24.9	25.2	25.7	26.9	28.1	29.2	29.8	30.2	31.0	31.4	2.94
	비중	5.1	4.7	4.4	4.5	4.4	4.4	4.3	4.2	4.1	3.9	
보건 및 사회복지	금액	12.2	12.8	12.6	12.0	12.7	13.3	14.0	14.8	15.8	17.1	4.57
	비중	2.5	2.4	2.2	2.0	2.0	2.0	2.0	2.0	2.1	2.1	
기타 서비스	금액	14.6	15.9	17.2	18.3	19.9	20.2	20.4	21.0	22.2	23.1	4.40
	비중	3.0	3.0	3.0	3.0	3.1	3.0	2.9	2.9	2.9	2.9	
국내총생산(시장가격)		487.2	533.4	578.7	600.9	642.7	662.7	694.0	723.1	760.3	798.1	4.71

자료 : 통계청, KOSIS(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http://www.kosis.kr/

먼저 한국의 총 GDP는 1998년 487.2조 원에서 2007년 798.1조 원으로 성장하였으며, 2000년 이후 2007년 까지 연평균 4.7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과 건설업은 2000년 이후 2007년 까지 연평균 4.07% 성장하였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은 1998년 50.7%, 2000년 48.3%, 2002년 49.2%, 2004년 47.1%, 2007년 46.3%로 증감을 반복하다 2002년 이후부터 미세하게 그 비중이 축소되었다.[27]

한국 서비스산업의 현황을 산업부문별 고용 상황으로 보면 다음 <다음 3-4>와 같이 먼저 총 취업자 수는 2000년 2,116만명에서 2007년 2,343만명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1.47%로 증가하였다.[28]

서비스업의 경우 종사자 수가 2000년 1,296만 명으로 총 취업자 수에서 61.2%의 비중을 차지한 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1,563만 명으로 66.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연평균 2.73%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전체 취업자 수의 2/3를 넘는 수준이다. 또한 WTO/GATS의 분류와 같이 전기·가스·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서비스 산업에 포함하여 분류하면 2007년 현재 총 취업자 수 대비 서비스 산업의 취업자 수는 그 비중이 75%에 육박하게 된다.[29]

따라서 최근 제조업의 고용창출력 약화,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고령화 추이, 삶의 질에 대한 욕구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는 서비스업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30]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31]가 제조업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7) 김시중, "한중 경제관계의 평가와 한중 FTA전망", 「국제통상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7.12.

28) 한국의 2007년중 全산업의 취업계수와 취업유발계수는 각각 8.2명, 13.9명으로 200년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김번식, 박준, "한국 서비스업 고용의 특징과 개선방안", 『Issue Paper』, 2009.10.29.p.1. 참조)

29) 한국은행, ECOS(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30) 김번식, 박준, "한국 서비스업 고용의 특징과 개선방안", 『Issue Paper』, 2009.10.29.p.4.

31)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 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全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말한다.

<표 3-4> 한국의 산업별 고용 현황

(단위:천명,%)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연평균 성장률
농림어업	인원	2,243	2,148	2,069	1,950	1,825	1,815	1,785	1,726	-3.65
	비중	10.6	10.0	9.3	8.8	8.1	7.9	7.7	7.4	
광업	인원	17	18	18	17	16	17	18	18	0.94
	비중	0.1	0.1	0.1	0.1	0.1	0.1	0.1	0.1	
제조업	인원	4,293	4,267	4,241	4,205	4,290	4,234	4,167	4,119	-0.58
	비중	20.3	19.8	19.1	19.0	19.0	18.5	18.0	17.6	
전기·가스·수도 사업	인원	64	58	52	76	72	71	76	86	5.71
	비중	0.3	0.3	0.2	0.3	0.3	0.3	0.3	0.4	
건설업	인원	1,580	1,585	1,746	1,816	1,820	1,814	1,835	1,850	2.34
	비중	7.5	7.3	7.9	8.2	8.1	7.9	7.9	7.9	
서비스업	인원	12,958	13,497	14,044	14,075	14,535	14,903	15,272	15,634	2.73
	비중	61.2	62.6	63.3	63.6	64.4	65.2	66.0	66.7	
도매 및 소매업	인원	3,833	3,931	3,991	3,871	3,805	3,748	3,713	3,677	-0.58
	비중	18.1	18.2	18.0	17.5	16.9	16.4	16.0	15.7	
숙박 및 음식점업	인원	1,919	1,943	2,007	1,981	2,057	2,058	2,049	2,049	0.96
	비중	9.1	9.0	9.1	8.9	9.1	9.0	8.9	8.7	
운수업	인원	1,068	1,114	1,140	1,084	1,128	1,149	1,163	1,214	1.89
	비중	5.0	5.2	5.1	4.9	5.0	5.0	5.0	5.2	
통신업	인원	192	208	231	249	248	279	308	284	5.98
	비중	0.9	1.0	1.0	1.1	1.1	1.2	1.3	1.2	
금융 및 보험업	인원	752	760	734	751	738	746	786	809	1.09
	비중	3.6	3.5	3.3	3.4	3.3	3.3	3.4	3.5	
부동산 및 임대업	인원	351	381	413	423	453	497	500	505	5.40
	비중	1.7	1.8	1.9	1.9	2.0	2.2	2.2	2.2	
사업서비스업	인원	1,010	1,149	1,251	1,303	1,461	1,540	1,669	1,845	9.04
	비중	4.8	5.3	5.6	5.9	6.5	6.7	7.2	7.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인원	758	701	702	757	768	791	801	797	0.81
	비중	3.6	3.2	3.2	3.4	3.4	3.5	3.5	3.4	
교육서비스업	인원	1,191	1,236	1,335	1,484	1,507	1,568	1,658	1,687	5.15
	비중	5.6	5.7	6.0	6.7	6.7	6.9	7.2	7.2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인원	428	484	551	539	594	646	686	745	8.36
	비중	2.0	2.2	2.5	2.4	2.6	2.8	3.0	3.2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인원	365	393	418	425	458	501	499	493	4.47
	비중	1.7	1.8	1.9	1.9	2.0	2.2	2.2	2.1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인원	886	975	1,038	994	1,169	1,226	1,282	1,353	6.41
	비중	4.2	4.5	4.7	4.5	5.2	5.4	5.5	5.8	
국제 및 외국기관	인원	19	16	18	22	24	24	20	15	-1.95
	비중	0.1	0.1	0.1	0.1	0.1	0.1	0.1	0.1	
총 취업자수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23,151	23,433	1.47

주 : 전기·가스·수도사업 및 건설업은 서비스업에서 제외

자료 : 통계청, KOSIS(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http://www.kosis.kr/

2. 한국의 서비스 수출입 현황

제조업의 소프트화와 경제의 서비스화가 세계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서비스무역은 오히려 적자폭이 계속확대 되고 있어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32] 최근 한국의 서비스 수출입 현황을 살펴 보면, 다음 <표 3-5>와 같이 한국의 전 산업을 포함하는 총 수출은 약 272조 790억원, 총 수입은 약 268조 2,970억원으로 약 3조 7,820억원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표 3-5> 한국의 산업별 수출입 현황 (2007년)

(단위 : 십억 원, %)

항 목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 산업	272,079	100.0	268,297	100.0	3,782
농림어업	532	0.20	6,910	2.58	- 6,378
광산업	29	0.01	41,659	15.53	- 41,630
제조업	230,332	84.66	182,714	68.10	47,618
서비스업	39,595	14.55	34,934	13.02	4,661
전력	44	0.02	61	0.02	- 17
도시가스 및 수도	6	0.00	52	0.02	- 46
건축 및 건축보수	21	0.01	18	0.01	3
토목건설	261	0.10	-	0.00	261
도소매	7,950	2.92	1,350	0.50	6,601
음식점 및 숙박	2,847	1.05	5,617	2.09	- 2,770
운수 및 보관	18,325	6.74	7,135	2.66	11,190
통신 및 방송	570	0.21	1,158	0.43	- 588
금융 및 보험	2,285	0.84	1,757	0.65	528
부동산	535	0.20	1,343	0.50	- 807
사업서비스	5,667	2.08	12,648	4.71	- 6,981
공공행정 및 국방	322	0.01	319	0.12	- 287
교육 및 연구	42	0.02	1,479	0.55	- 1,437
의료, 보건 및 사회보장	788	0.03	56	0.02	21
문화오락서비스	741	0.27	1,812	0.68	- 1,071
기타 서비스	191	0.07	133	0.05	59
분류불명	1,590	0.58	2,079	0.77	- 489

주 : 1. 「산업연관표」의 생산자가격표 항목 중 '수출 및 (공제)수입계' 수치로 작성
2. 전기 · 가스 · 수도사업 및 건설업이 서비스업에 포함

자료 : 한국은행, ECOS(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32) 한국무역협회, "서비스무역 현황과 시사점", 2005.11.2. p.1.

제조업에서는 47조 6,810억원, 서비스업에서 4조 6,610억원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33] 산업별 수출입 비중을 살펴보면, 수출측면에서는 제조업이 230조 3,320억원으로 84.66%의 비중을 차지하여 가장 높으며, 서비스업이 39조 5,950억원으로 14.55%을 차지하였으며, 수입측면에서 제조업이 182조 7,140억원으로 68.10%를 차지하여 역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광산업의 수입금액이 41조 6,590억원으로 15.53%, 서비스업이 34조 9,340억원으로 13.02%, 농림어업이 6조 9,100억원으로 2.58%를 차지하였다.

서비스산업의 세부 부문별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금액은 운수 및 보관 서비스 부문이 18조 3,250억원, 도소매 서비스 부문이 7조 9,500억원, 사업서비스[34] 부문이 5조 6,670억원으로 주요 수출산업이며, 수입금액은 사업서비스가 12조 6,480억원, 운수 및 보관 서비스 부분이 7조 1,350억원,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부문이 5조 6,170억원으로 주요 수입산업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에 나타난 서비스 산업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서비스 부문이 6조 9,810억원의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였고, 운수 및 보관 서비스 부문이 11조 1,900억원의 가장 큰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 생산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진환을 위한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조업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 서비스산업의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제조업을 포함하여 경제 전체의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아울러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간의 생산성 격차 해소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35]

---

33) 윤창인, “한·중·일 FTA :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12.30. p.43

34) 사업서비스는 기업의 중간재 성격으로 사용된 서비스로서 다음의 3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무역관련 서비스로 오퍼수수료, 중개·대행 수수료, 임가공료. 둘째, 기타 사업·기술·기술·전문서비스로 홍보,컨설팅 서비스 등. 셋째, 운용리스 서비스로 수송장비 임대차가 포함된다.

35) 산업연구원,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비교 분석”, 『e-Kiet 산업경제정보』, 제222호 (2004-43), 2004.9.22.p.8.

제 3 절 한국 서비스무역 중국시장의 진출 현황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산업별 진출 현황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국의 전체 대중국 투자건수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 <표 3-6>과 같이 20.5%로 2001년 이전의 두 배를 넘어섬으로써 서비스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자액 면에서는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6%로 이전에 비해 오히려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중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한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소규모 투자가 대종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36]

<표 3-6> 한국 대중국 투자 산업별 분포(투자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업종	투자 실적				구성			
		총계	1998~1999	2000~2004	2005~2007	총계	1995~1999	2000~2004	2005~2007
투자건수	전산업	15,372	3,616	2,548	9,208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228	77	26	125	1.5	2.1	1.0	1.4
	광업	63	20	9	34	0.4	0.6	0.4	0.4
	제조업	12,315	3,152	2,215	6,948	80.1	87.2	86.9	75.5
	건설업	200	36	10	154	1.3	1.0	0.4	1.7
	서비스업	2,488	316	287	1,885	16.2	8.7	11.3	20.5
	부동산+기타	78	15	1	62	0.5	0.4	0.0	0.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로부터 작성.

서비스분야의 업종 중에서 자동차 관련 서비스, 전자 및 통신기기 판매서비

36) 김시중, "한중 경제관계의 평가와 한중 FTA전망", 「국제통상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7.12. p.21.

스, 중소 소매 유통, 음식업 등에 대한 진출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금융, 통신, 운송, 물류 등 대형 투자가 소요되는 분야에서의 진출은 부진하였다.

한국계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3-7>과 같이 지점과 사무소 등 총 39개이며, 이 중 은행이 22개, 보험회사 11개, 증권사 4개, 할부금융 등 기타 2개 등이 있다.

중국의 금융산업은 전반적으로 질적 발전이 미흡한 편이나 2001년 WTO 가입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은 명목 GDP의 4.3%(2007년)에 불과하지만, 성장속도는 2000년대 들어 매우 빨라져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산업 자산이 2002년에서 2008년까지 7년간 2.7배(2002년 대비 2008년) 증가하였다.[37]

최근에 들어 한국 은행들은 중국 진출에 적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점과 같은 영업점 진출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에 치중하고 있다. 진출지역은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북경, 상해, 청도, 천진, 심양, 대련, 광주 등에 집중되어 있다. 외국계 은행들이 중국의 은행에 대한 전략적 M&A를 통해 중국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M&A에 의한 한국 은행들의 진출은 전무한 상황이다.

<표 3-7> 한국계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 현황

(단위: 개사)

업종	사무소	지점	현지 법인	계	진출기관
은행	4	17	1	22	-
손해보험	6	-	1	7	삼성, LG, 코리안리, 현대
생명보험	3	-	1	4	교보, 대생, 삼성
증권	4	-	-	4	삼성, 우리, 한화, 현대
신기술사업	1	-	-	1	KTB네트워크
할부금융	1	-	-	1	현대캐피탈
합계	19	17	3	39	-

자료: 국제금융센터.

37) 박동준, 박창현, 김영근, 박진호,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적 위상 변화와 향후 전망”, 『한은조사연구』 2009-12, ISSN 2092-4836, 한국은행, 2009.11.p.14.

2. 한국의 업종별 투자 현황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내수시장을 개방하면서 다음 <표 3-8>과 같이 중국 내 법인의 중국내수 판매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점과 의류 등 소매유통 업체의 중국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동차 조립업체의 진출과 더불어 자동차 관련 서비스(자동차 및 부품 판매, A/S, 주유소 등) 분야에 대한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38].

<표 3-8> 서비스 업종별 대중국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업종		투자 실적				구성			
			누계	1995~1999	2000~2004	2005~2007	누계	1995~1999	2000~2004	2005~2007
투자금액	서비스업(전체)		1759	399	268	1093	100.0	100.0	100.0	100.0
	도소매	소계	784	109	84	591	44.6	27.3	31.5	54.1
		자동차 도소매 수리	193	11	7	176	11.0	2.8	2.6	16.1
		전자 통신기기 도소매	75	30	12	33	4.3	7.6	4.6	3.0
		기타 도소매	516	68	65	383	29.3	17.0	24.3	35.0
	운수 창고		122	44	30	47	6.9	11.1	11.4	4.3
	통신		95	49	38	9	5.4	12.3	14.1	0.8
	금융 보험		1	0	0	1	0.1	0.0	0.1	0.1
	음식숙박	소계	322	181	69	72	18.3	45.4	25.6	6.6
		숙박	241	160	59	22	13.7	40.1	22.1	2.0
		음식업	81	21	9	50	4.6	5.3	3.5	4.6
	기타서비스	소계	434	16	47	372	24.7	3.9	17.4	34.1
		IT관련서비스	103	0	16	86	5.8	0.1	6.1	7.8
		교육서비스	10	0	1	9	0.6	0.0	0.4	0.8
		기타서비스	322	15	29	278	18.3	3.8	10.8	25.4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

투자형태는 대형 할인점 외에 프랜차이즈, 홈쇼핑 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

38) 윤기관, 왕하, "중국 서비스무역의 장기발전 계획과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부문 투자기업의 대응전략", 「2008 경제학 공동국제학술대회」,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8.p.31.

으며,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39]의 중국 진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대중국 제조업분야의 투자를 기업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3-9>와 같이, 중소기업이 투자건수에서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 말 대기업의 투자 비중(투자액 기준)은 49.8%로 중소기업 투자 비중(45/6%)보다 높은 편이나, 1990년대 초반까지는 중소기업 투자가 대기업보다 높았다. 이는 초기에 중국의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해 노동집약형의 중소기업 투자가 먼저 진출했기 때문이며, 이후 점차 중국의 내수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대기업 투자액이 중소기업투자액을 상회하고 있다.[40]

<표 3-9>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제조업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1995 이전	1995-1999	2000-2004	2005-2007	누계
투자건수	대기업	18	281	50	175	524
	비중	19.4	9.2	2.3	3.0	4.7
	중소기업	74	2454	1570	3429	7527
	비중	76.6	80.2	70.8	59.3	67.5
투자금액	대기업	26	1522	1348	2858	5752
	비중	40.6	53.0	66.6	434	49.8
	중소기업	37	1301	605	3316	5259
	비중	58.8	45.3	29.9	50.4	45.6

주: 누계는 2007년 말 기준임.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외의 투자는 기타(개인투자 등)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지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 3-10>과 같이 68.7%가 단독투자 형태로 진출하였으며, 합자 형태로 진출한 기업은 31.3%에 불과하다. 합자기업 중에서도 한국 측이 50% 이상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전체 대중 투자건수의 12.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가 WTO 가입 이후 단독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내수시장을 개방

39) 2005년 2월 중국정부가 「상업 프랜차이즈 유통관리방법」을 시행하여 프랜차이즈 시장이 외국기업에 전면 개방되면서 국내브랜드 신규 진입이나 직영점 전개를 위주로 하던 선발 업체들이 가맹사업으로 본격 전환하는 등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40)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08년 세계경제 및 국별 전망」, 2007.12.p.81.

하면서 단독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출시기별로 단독투자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1995년 이전에는 합자기업이 단독투자기업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5~1999년 중에는 51.7%, 2000~2004년 중에는 71.3%, 2005년 이후에는 74.5%가 단독투자 형태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한국기업 대중국 투자의 지분율별 분포

(단위: 건, %)

	전체		100%		50%이상 100%미만		50%		50%미만	
	건수	구성	건수	구성	건수	구성	건수	구성	건수	구성
1991년 이전	101	100.0	41	40.6	26	25.7	17	16.8	17	16.8
1992-1997년	3513	100.0	1817	51.7	792	22.5	356	10.1	548	15.6
1998-2001년	2549	100.0	1817	71.3	268	10.5	108	4.2	356	14.0
2002-2007년	9746	100.0	7257	74.5	824	8.5	376	3.9	1289	13.2
전 기간	15909	100.0	10930	68.7	1912	2.0	858	5.4	2269	13.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 4 장 중국 서비스 시장의 진출전략

제 1 절 중국 서비스 시장의 현황

1. 중국 서비스 시장의 특징

가. 서비스산업의 발전과정

1970년대 말의 개혁·개방이후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 경제는 2001년 WTO 가입을 거쳐 2003년부터 연속 경제성장률이 10%를 초과하는 등 최근까지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이후 최근까지 제조업 중심의 외자유치 및 성장 전략을 중시해 온 결과 GDP에서 차지하는 3차 산업의 비율이 너무 낮고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뒤처지고 있음을 지적을 받아 왔다.[41]

개혁·개방 이래 중국 서비스산업의 발전과정은 대체로 두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78~91년의 회복성 고속성장 시기이며, 두 번째 시기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의 비교적 빠른 성장시기이다. 후자의 기간동안 서비스 산업은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이룩하여 일자리가 대폭 증가했고, 내부구조가 크게 합리화되었다.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문화교육, 과학기술 종합서비스 등 부가가치가 비교적 높은 신흥산업이 급속히 발전했다. 상업무역, 요식업, 교통운수, 주민서비스를 비롯한 전통 업종은 계속 발전했고, 서비스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42]

1992년 이후 서비스산업의 고속발전은 중국공산당 중앙 및 국무원이 1992년 반포한 <3차 산업발전 가속화에 관한 결정>에 힘입은 바 크다.

한편 2002년에 국무원은 10차 5개년계획 기간중 WTO 가입 후의 새로운 서

41) 산업연구원, "중국의 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제371호(2007-44), 2007.12.26. p.1.

42) KIEP 북경사무소, "중국 서비스교역 발전보고 2006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제07-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01.30. p.23.

비스업의 진일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 <10차 5개년계획 기간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를 위한 정책조치에 관한 의견>을 하달하였다.[43]

이는 장기적으로 서비스업 발전을 제약해 온 정책적 장애가 기본적으로 철폐되었음을 의미하며, 장차 서비스업의 고속발전을 위한 양호한 제도 및 정책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국민경제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규획(이하 11.5 규획)」에는 기존 경제발전 계획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44]

즉, 개혁·개방 이후 제조업 중심의 외자유치와 성장전략에 매진해오던 중국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내걸었다. 이는 경제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단계의 이동임과 동시에 중국경제의 고질병 중 하나인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또한 위안화 절상압력, 미국발 세계경제 침체 등 향후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대외무역환경 악화로 인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수출중심에서 벗어나 내수를 진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 서비스산업의 양적 평창

중국의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낮은 편이나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9년부터 2006년까지 28년간 중국의 실질 GDP는 연평균 9.7%의 고도성장을 시현하였는데, 부문별로는 농림어업 4.6%, 제조업 11.5%, 그리고 서비스업 10.7%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서비스산업이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시기별로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부가가치의 비중은 2006년 39.4%로 개도국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

43) 同 의견에는 서비스업종 구조의 합리화, 서비스업 취업규모의 확대, 기업개혁 및 재편 가속화, 서비스시장 진입조건 완화, 대외개방의 단계적 확대, 중심도시 공업기업의 용적률 축소 및 서비스업의 용적률 제고, 서비스업 분야 인력 육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서비스업 투입 증가, 도시와 농촌 주민의 서비스 소비 확대, 서비스업에 대한 관리지도 강화 등의 정책 및 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 포함되어 있다.

44) 윤상하, "중국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비즈니스 기회", 『LG 주간경제』, LG경제연구원, 2006.11.29. pp.34-36.

다. 산업구조의 합리화

서비스산업의 총규모 확대와 함께 산업내부구조도 합리화되고 있다. 우선 전통 도소매업, 요식업 및 교통운수업 등의 서비스업종이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보이고, 신흥 업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통신, 금융, 보험 등을 비롯한 신흥 서비스업종의 신속한 발전은 서비스업 부문에 활력과 지속적인 발전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제시함으로써 그 동안 제조업을 중심으로 진출해 왔던 한국 및 외국계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실제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외자이용 제11차 5개년 규획」을 발표하면서 서비스 산업의 대외개방을 적극적,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WTO 가입 시 내걸었던 약속대로 서비스산업의 외자이용 촉진 관련규정을 제정, 발표하고 외자도입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언급하였다.[45]

이로써 중국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 11.5 규획의 연장선 상에 있는 이러한 조치로 향후 중국 내에서의 서비스산업의 시장규모가 엄청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산업에서 기업간 전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라. 노동력 흡수기능 증대

서비스업은 점차 노동력을 흡수하는 주로 채널로서 산업구조조정 및 국유기업 개혁의 순조로운 추진, 취업압력의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서비스 산업은 여전히 상당히 낙후한 수준이고[46], 선진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일부 저소득국가와 비교해도 격차가 있다.

---

45)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GDP에서 점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율을 2010년까지 3%포인트 제고하여 2020년에는 GDP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며, 둘째, 전체 취업자에서 점하는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비율을 2010년까지 4%포인트 제고하며, 셋째, 서비스산업 생산액 증가율이 GDP 성장률 및 2차 산업 생산액 증가율을 각각 상회하도록 하고, 2010년의 서비스 무역액을 4,000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한다.

46) 전통산업의 비중이 너무 높고 신흥업종인 생산서비스 및 주민소양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업종의 발전이 취약하다.

서비스산업은 노동집약 및 기술집약, 지식집약 업종으로서 수준과 자질이 상이한 다양한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다.

취업자 수의 변화를 보면, 농림어업은 1991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2차 산업은 1979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3.7%, 그리고 서비스산업은 연평균 5.9%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다수 신규진입 노동력의 흡수와 함께 농촌지역 및 제조업의 잉여 노동력을 흡수함으로써, 취업자 수가 1978년 4,890만 명에서 2006년 2억 4,614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취업자의 비중은 2006년 현재 아직 32.2%에 불과하였다.[47]

서비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 및 운수·보관, 요식업 등 전통적 서비스업종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금융·보험이나 통신, 법무·회계·경영컨설팅·엔지니어링·디자인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은 매우 취약한 업종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마. 지역간 서비스산업 발전 격차

중국 서비스산업의 발전 정도를 권역별로 볼 때, 제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산업이 동부 연안 등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발전되고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48]

동부지역의 대도시들은 이미 종사자수나 부가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서비스산업의 규모가 가장 큰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중부 내륙 허난성의 경우 지역총생산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0%, 서비스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수는 22.5%에 그쳐 대도시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각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한 지역별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

47) 1차 산업 42.6%, 2차 산업 25.2%이다.

48) 서비스산업 부가가치의 권역별 비중(2006년)을 보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동부지역이 57.9%로 매우 높은 반면 중부지역은 17.3%, 서부지역 16.8%, 그리고 동북부지역은 8.1 %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2. 중국 서비스시장 부문별 현황

가. 소매서비스업

중국 상품판매 분야의 대외개방은 시간적으로나 개방 폭으로나 모두 제조업 분야에 뒤쳐져 있다. 1992년 국무원이 북경, 상해 등 주요 도시 및 5개 경제특구에서 중외 합자 혹은 중외 합작경영의 상업소매기업 설립을 승인함으로써 소매업의 대외개방이 시작되었다. 외자 진출의 형식에 있어서는 외국업체가 합자 혹은 합작 형식으로 상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지만 독자상업기업의 설립은 금지되었다. 외자소매기업에 개방된 지역은 성 및 자치구정부 소재지, 직할시, 단열계획도시 및 경제특구로 제한된다. 소매업의 시장진입에 있어서는 화학비료를 포함한 상품에 대해서는 전문경영체제를 실시하고, 연초 등에 대해서는 전매제도를, 원유 및 정유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를 실시한다. 동시에 상업기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자격, 투자비율, 경영형식 및 경영기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49]

나. 통신서비스업

중국 통신시장은[50] 시장규모 및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수익성이 매우 높은 매력적인 시장이다. 따라서 많은 외국계 통신업자들이 진출을 시도해왔으나,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전까지 정부의 산업 보호정책으로 인해 진출이 거의 불가능했었다.[51]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 이후로 통신 시장이 점차 열리기 시작하여, 2008

---

49) 예를 들면 중국 「외상투자상업기업 시범방법」에 의하면 합영 상업기업의 분점은 중외쌍방의 직접투자, 직접경영의 직영체인점 형식만 허용하고 당분간 자유연쇄, 특허체인점 등의 기타 연쇄점은 허용하지 않는다. 합영 상업기업의 경영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서부지역에서는 40년을 초과할 수 없다.

50) 통신서비스업은 통상 통신부가가치 서비스 업무 및 통신기초서비스 업무를 포함한다. 그 중 통신부가가치서비스 업무는 주로 호출센터, 전자메일, 메시지, 인터넷회의 등을 포함하고 기초서비스 업무는 이동전화서비스 및 고정전화서비스를 가리킨다.

51) 산은경제연구소, 중국 통신서비스 산업구조개편과 향후전망, 2008.12. 참조

년 베이징올림픽과 함께 진행된 4차 통신산업 구조개편을 계기로 진출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었다.[52] 4차 구조개편의 내용은 유무선 통합 3사의 출현과 각각 다른 3G 기술표준 사업권 담당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 시장의 70%를 점유하던 차이나모바일은 중국 자체 기술로 만들어져 현재 시험 중에 있는 TD-SCDMA 사업을 맡았고, 차이나텔레콤은 CDMA2000, 차이나유니콤은 WCDMA 사업을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중국 통신서비스 시장은 유무선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며, 차이나모바일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되어 시장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개편을 계기로 중국시장 진출이 용이해진 만큼,[53] 외국계 통신업자들은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로컬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내수시장 유통망을 활용하는 등 중국시장 진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WTO 가입약속에 따른 중국통신서비스업의 개방 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서비스(무선호출 포함), 2001년 11월 WTO 가입 직후 외자비율을 30%까지 허용하고, 북경, 상해, 광주를 개방한다. 2002년 외자비율을 49%까지 허용하고 북경, 상해, 광주외에 14개 도시를 개방한다. 2003년 외자비율을 50%까지 허용하고 중국전역을 개방한다. 둘째, 이동서비스, 2001년 11월 WTO 가입 직후 외자비율을 25%까지 허용하고 북경, 상해, 광주를 개방하며 2002년 외자비율을 35%까지 허용하고, 북경, 상해, 광주외에 14개 도시를 개방한다. 2003년 외자비율을 49%까지 허용하고 중국전역을 개방한다. 셋째, 고정전화서비스, 2004년 외자비율을 25%까지 허용하고 북경, 상해, 광주를 개방한다. 2006년 외자비율을 35%까지 허용하고 북경, 상해, 광주 외 14개 도시를 개방한다. 2007년 외자비율을 49%까지 허용하고 중국 전역을 개방한다.

다. 은행업

52) 중국이 90년대에 접어들어 전국적으로 전기 및 위성통신과 컴퓨터 통신 및 광케이블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삼금 공정(三金工程, three golden projects)'이라 하여, 경제 통계 정보 전산망과 무역 전산망 그리고 금융 전산망의 3대 서비스 통신망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53) 외자의 중국 통신서비스시장 진출 형식은 중외합자경영 및 중외합작경영의 2가지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외자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개방은 1981년 경제특구에 홍콩 남양상업은행의 영업성 지점 설립을 승인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어서 심천을 비롯한 5개 경제특구, 상해를 포함한 8개 연해 개방도시, 북경을 포함한 11개 내륙 주요도시를 잇따라 개방했고, 1996년과 1998년에는 상해와 심천에서 인민폐업무를 개방했다. 외자 금융기관의 진출형식은 외국독자은행, 외국은행 지점, 합자은행, 독자 재무회사 및 합자 재무회사 등 5가지 형식으로 구분된다. WTO 가입으로 은행부문의 대외개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첫째, 외자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서비스대상에 대한 제한을 취소한다. 단, 반드시 운영자금 혹은 자본금을 일정 수준으로 확충하고 금융업무 허가증 및 금융업무법인허가증을 갱신해야 한다. 둘째, 상해, 심천에 위치한 외자금융기관이 정식으로 인민폐업무를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천진, 대련에 위치한 외자금융기관의 인민폐업무 신청을 허용한. 셋째, 비은행 외자금융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독자 혹은 합자로 자동차금융서비스회사를 설립해서 자동차 할부금융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넷째, 외국투자자가 독자 혹은 합자 금융회사를 설립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의 외자금융기관은 178개, 그 중 외자독자은행 6개, 합자은행 7개, 외국은행지점 158개, 재무회사 5개, 투자은행 1개, 기업그룹재무회사 1개이다. 동시에 외자금융기관의 자산도 계속 늘어나 현재 외자은행 자산이 중국의 은행부문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2.5%에 달한다. 외자은행의 양적인 증가 및 자산규모 확대에 따라 외자은행의 예금대출, 국제결제 등 분야에서의 업무도 급속히 확대되었다. 2000년 외자은행의 외환예금 및 대출액이 연간 외환예금 대출총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각각 4.84%, 23.37%였다. 중국은 개도국 중 은행업의 개방수준이 상당히 높은 국가에 속하게 되었다.

라. 보험업

중국 보험시장의 본격적인 대외개방은 1992년 중국인민은행이 미국 AIA사의 상해지사 설립을 비준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외자 보험회사는 주로 합자 및 지사의 형식을 취한다. 중국은 외자 보험회사의 시장진입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심사비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외자 보험회사가 중국 보험시장에 진출하려면 자금, 기술, 인원 등의 요구조건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컨대 <외자보험회사관리조례> 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보험회사는 보험업무 30년 이상 종사, 중국내 대표사무소 설립 2년 이상, 설립 신청서를 제출한 전년 연말 시점에서 50억 달러 이상의 총자산 보유기업이라야 한다. 또한 본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보험업 감독관리제도가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업무범위, 업무지역 및 고객과 관련, 외자회사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심사비준 범위 내에서만 업무활동을 할 수 있다.

현재 32개 외자 보험회사가 중국에서 개업 비준을 얻었으며, 그 중 생명보험회사 20개, 손해보험회사가 12개이며 모두 지역성 보험회사이다. 2002년 6월 북경에서 개업한 미국 AIA사는 북경 최초의 외자보험회사이다. 조만간 중국 재보험시장에 진출할 예정인 Munich Rt.사는 최초의 외자 재보험회사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 19개 국가 및 지역의 112개 외자보험회사가 중국의 14개 도시에 199개 대표처를 설립해 있다. 외자 보험회사의 보험료수입은 32.82억원에 달해 중국 보험료수입 총액의 1.55%를 차지하였다.그 중 생명보험 보험료수입은 27.78억원으로 전체의 1.95%, 손해보험 보험료수입은 5.04억원으로 전체의 0.78%를 점하였다. 이미 개방된 상해와 광주 지역에서 외자회사의 생명보험시장 점유율은 각각 14.4%, 11.8%, 외자의 손해보험 시장점유율은 각각 6.7%, 1.5%이다.[54]

54) 우진순, "중국 보험산업의 현황과 외국기업의 진출 가능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10.p.15.

3 . 중국 서비스 시장의 발전 전망

1) 서비스시장 규모의 성장

중국 서비스산업은 발전속도가 빠르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이 날로 제고되고 있다. 그러나 3차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보면 2001년 중국의 상황은 여전히 선진국의 70% 수준에서 크게 뒤지고 개도국의 평균수준에 비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55] 이는 중국 서비스산업의 성장 여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실제로 중국정부의 중장기 경제·산업 발전전략을 실질적으로 구상, 입안하는 국무원발전연구중심에서 내놓은 2020년까지의 중국 산업구조에 대한 전망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산업이 얼마나 팽창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1차 산업은 2010년과 2020년에 그 비중이 10.6%에서 7.0%로, 2차 산업은 각각 54.2%, 52.6%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반면, 서비스산업은 35.2%에서 40.4%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11.5 규획 기간 동안에 중국정부는 특히 물류 등을 포함하는 창고 및 운송업, 통신업, 광고업 등 소위 고부가가치의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서비스경제화, 산업고도화를 이끄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56]

향후 몇 년간은 중국 서비스산업의 성장 동력과 기초가 강화될 것이며, 특히 도시화 가속과 도시경제의 진일보 발전 및 사회분업의 세분화는 서비스산업에 더욱 큰 발전 여지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10차5개년계획"기간 동안 서비스산업의 발전목표는 다음과 같다.[57]

---

55) 2007년 2월, 중국 국무원은「서비스산업의 발전가속에 관한 몇 가지 의견(加快發展服務業的若干意見)」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경제목표와 함께 향후 서비스산업 육성을 한층 강화해 간다고 하는 중국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의지를 천명이다. 중국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의지는「국민경제사회발전 제11차 5개년계획(2006~2010)」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 있으며, 이어 2006년 11월에 공표된「외자이용 제11차 5개년 계획」에서도 서비스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시장개방 및 외자도입 확대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56) 윤상하, 전게서, p.37.

57) KIEP 북경사무소, 전게서, p.77.

즉 서비스업 증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약간 높은 7.5%내외가 되도록 하고, GDP내 비중을 2000년의 33.2%에서 2005년의 36%로 제고한다. 또 서비스업 취업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을 4% 이상 유지하고, 5년간 신규 취업인원을 4,500만 명으로 증가시켜 전사회 취업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00년의 27.5%에서 2005년에는 33%로 제고를 계획하고 있다.

2) 서비스 시장 진입장벽 완화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서비스 시장에 대한 엄격한 진입 제한을 실시해 왔다. 은행, 보험, 통신, 교육, 위생, 신문출판, 방송, TV 등은 기본적으로 완전 국가독점 상태였고, 여타 업종들도 비국유경제 및 외자에 제한적으로 밖에 개방하지 않았다. 엄격한 진입 제한으로 인해 서비스산업은 경영진이 상대적으로 단일하고 절대다수 업종에서 여전히 국유기업이 주도적, 혹은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58] 따라서 서비스업 투자는 기본적으로 국유투자 위주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미 독점 철폐, 서비스산업 시장진입 조건 완화를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의 중요한 조치로 확정하였다. <"10차5개년계획"기간 서비스업 발전가속화를 위한 정책조치에 대한 의견>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우선 비국유경제의 서비스산업 진입을 적극 장려하고, 철도, 민항, 통신, 공공사업 등 업종 관리체제의 개혁을 가속화함으로써 대외무역, 교육, 문화, 중개서비스 등 업종의 시장진입 조건을 완화키로 하였다. 또한 외자 진출을 허용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 민간투자자의 진출도 허용하며, 유관부문에서 진입분야, 진입조건, 진입절차 및 관리감독 방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공시할 것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은행, 보험, 증권, 통신, 대외무역, 상업, 문화, 관광, 의료, 회계, 감사, 자산 평가, 국제화물 운송대리 등 분야에 대한 단계적 대외개방을 제기하였다. 조건을 갖춘 기업은 서비스업 부문의 다국적 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장려하고, 디자인 컨설팅, 대외공사 및 기술청부, 노무협력 등을 장려하

58) 현재 서비스업의 고정자산투자에서 국유경제투자는 60% 내외를 차지한다. 서비스업의 44개 대업종 가운데 요식업, 부동산, 호텔, 임대, 오락업의 5개 업종을 제외한 기타 39개 업종에서 국유투자가 50% 이상을 차지하며 그 중 20여 개 업종의 경우 90% 이상에 달한다.

며 관련 부문이 기업의 국제시장 개척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WTO 가입에 따른 대외개방 및 시장화 수준의 향상은 중국 서비스산업의 전반적 수준 제고를 가져올 것이며, 시장기능의 강화는 서비스 시장의 자원배분의 효율을 더욱 제고시킬 전망이다.

3)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

중국 서비스산업은 운수, 창고, 상업무역, 음식 등 전통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금융, 통신, 컨설팅, 회계, 법률 등 현대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이 밖에 서비스 범위가 좁고 수준이 낮은 것도 중국 서비스산업이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정부정책 및 시장기능이 서비스산업 구조조정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향후 서비스산업 구조조정의 추세는 주로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것이다.[59]

첫째, 금융을 비롯한 현대 서비스업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부단히 제고될 것이다. 금융, 통신, 보험 등 현대 서비스산업은 이미 시장경제 국가에서 중요한 산업분야로 부상하였으며, 상당한 발전단계에 와 있는 업종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러한 업종들이 장기적인 독점경영으로 인해 여전히 발전 여지가 크고 이윤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시장 진입조건의 완화에 따라 외자기업 및 민영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업종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끊임없이 제고될 것이다. 둘째, 전통서비스업의 고도화가 부단히 진행될 것이다. 현재 정보기술의 발전 및 광범위한 활용은 이미 구조 고도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서비스업은 현대기술을 가장 보편적으로 응용하는 업종중의 하나로, 신기술의 끊임없는 응용으로 서비스업 자체의 현대화 및 정보화를 실현하고 또 이것을 기초로 기타 분야에서의 분업과 협력을 통해 서비스 분야 및 질을 더욱 발전시킨다.

---

59) 박문서, “서비스무역을 포괄하는 대외무역법 개정 방향,” 「통상정보연구」, 제6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4.25.p.53.

4) 서비스 경쟁의 다양화

서비스 경쟁의 다양화는 중국의 서비스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국제기업은 서비스시장의 세분화를 중시하는바, 경쟁심화는 서비스시장의 세분화를 가속화하고 이로 인해 서비스시장의 분야 및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개방 및 경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 중국의 주요 서비스산업은 장기적으로 독점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시장경쟁에 대한 대응 경험이 부족하다. 폐쇄된 시장환경 속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대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서비스시장의 대외개방 확대에 따라 실력, 관리, 경험 등 측면에서 우수한 외국기업의 진출은 중국기업에 커다란 위협을 가져오겠지만, 동시에 선진적인 경영관리 이론과 방법을 전수함으로써 중국기업에게 학습기회와 경쟁력 제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중국 서비스산업은 기존의 시장기반과 우위를 바탕으로 개방과 경쟁을 통해 자체 실력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진정한 경쟁력을 배양할 것이다.

4 . 서비스산업 개방의 영향

중국 서비스산업의 대외개방은 중국경제 발전의 필연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는 저장이 불가능하고 광범위한 침투성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상품시장의 개방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심지어 국가의 주권, 기밀, 안보 및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 개방이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고, 이에 기초해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60]

60) 전통 정치경제학에서 특정 국가의 경제 발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국가의 공업과 농업의 비중이며, 공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발전된 경제로 본다. 그러나 현대의 경제활동에서는 서비스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국가경제의 발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왜냐하면 서비스업이 현대사회의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혁개방 이래 중국 서비스산업은 신속한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중국 서비스산업은 여전히 낙후되어 발전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운영효율도 낮아 국민경제 발전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로 다음 세 가지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서비스산업의 전체 규모가 작다. 둘째, 기초가 취약하고 구조가 불합리하며 지역간 발전이 불균형하다. 셋째, 시장화 정도가 낮은 데 따른 경쟁 결여로 상업, 주민서비스 및 도로운수를 제외한 다수 업종에 여전히 독점현상이 존재하며, 시장진입에 대한 제한이 많다. 또한 대부분의 서비스제품 가격을 정부가 결정, 관리하며 자원배치에 대한 시장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이 실시중인 제3단계 전략목표의 순조로운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장기적이고 시급한 전략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고해야 하며 다른 한편은 서비스업 개혁을 확대해 서비스업의 운영효율을 제고해 경제발전의 저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61]

61) 송기호, “중국경제의 이해”, 서울: 청목출판사, 2008. p.134.

제 2 절 한국 서비스무역의 중국시장 진출전략

1. 서비스 아웃소싱 기지로서의 중국 활용

세계적으로 서비스 부문의 아웃소싱(offshore outsourcing)[62]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도 서비스 아웃소싱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수출액은 1999년 2억 5천만 달러에서 2005년 35억 9천만 달러까지 약 14배 증가하였다. 최근 중국에서도 서비스 아웃소싱 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63] 중국 정부는 2006년부터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 아웃소싱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의지를 밝혀 왔다.[64]

제11차5개년 규획 요강(國民經濟与社會發展第十一个五年規划綱要)에서 "서비스 아웃소싱 기지를 건설하고, 국제 서비스산업의 이전을 받아들인다"고 명시한 바 있다. 2007년 3월, 국무원은 <서비스산업 발전 가속화에 대한 약간의 의견(關于加快發展服務業的若干意見)>을 통해 서비스 아웃소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무역을 발전시켜 중국 대외무역 구조를 개선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65] 이에 따라 상무부와 과학기술부 등은 지금까지 총 14개 도시를 서비스 아웃소싱 기지로 공식 선정하였다. 서비스 아웃소싱 기지로 선정된 도시는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등 동부 연안의 도시 이외에도 시안, 청두, 우한 등 중서부 내륙지역의 도시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을 서비스아웃소싱 기지로 활용하는 전략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하고 언어의 제약이 있어, 원천 기술을 아웃소싱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데이터 입력, 문서양식 처리, 소프트웨

62) 아웃소싱(offshore outsourcing)이란 기업 활동의 일부를 외국의 생산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63) 상무부 마슈홍(馬L秀紅H) 부부장은 서비스 아웃소싱의 발전이 1) 지역 간의 균형 발전, 2) 취업 구조 조정, 3) 새로운 소비의 창출, 4) 산업구조 고도화, 5) 에너지 및 환경 부문의 부담 해소, 6) 고용 확대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64) 중국이 서비스 아웃소싱에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풍부한 인력, 저렴한 비용 및 인건비 등과 같은 차별화된 이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6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 육성 전략과 전망",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제08-17호, 2008.8.19.pp.1~6.

어 테스트 등 2차적인 서비스의 아웃소싱은 가능하다. 특히 중국과의 지리적, 언어적, 문화적 근접성을 감안할 때 동북아 시장을 목표로 한 온라인게임 개발, 콜센터 운영 등에서 중국인력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단기적으로는 중국의 동북지역과 동부 연해지역이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비즈니스서비스 아웃소싱 기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시안, 청두, 우한 등 내륙지방의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서의 서비스아웃소싱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륙지방은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 임대료와 임금 등의 경비부담이 베이징, 상하이에 비해 40~50% 수준에 그쳐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다 정교하고 세련된 고부가가치 서비스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동부 연해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의 서비스는 비용 부담이 적은 내륙지역에서 아웃소싱하는 이원적 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비즈니스서비스 중국시장 진출 활성화

가. 법률서비스 활용 및 진출

최근 중국 진출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문 법률서비스[66] 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기업의 세무, 노무, 환경 관련 법 규정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규정을 보완하고 강력한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외자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반독점법 제정을 추진하고 외자에 의한 M&A 심사를 강화하는 등 외자기업과 관련한 중국내 법률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중국내 법률환경을 이해하고 비즈니스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률서비스의 적절한 활용

66) 넓은 의미의 법률서비스(legal service)에는 “법무전문직에 의한 법률 자문과 소송대리 서비스를 비롯한 판사, 검사, 법원 공무원 등에 의한 일체의 활동”까지 포함한다. 좁은 의미의 법률서비스는 넓은 의미의 법률서비스에서 "정부권한의 행사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a service supplied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를 제외한 개념이다. 즉 “변호사에 의한 법률서비스 및 변리사, 법무사, 행정서사 등에 의한 법률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대단히 중요하다.[67]

중국은 지난 1992년부터 외국법률사무소 설립허가를 내줬으나 아직도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계 법률사무소들은 중국 국내법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으며, 중국 변호사들을 정식 고용하는데도 제약이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로펌들의 중국 진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68] 법률분야의 해외진출 문제는 해외에 나간 한국 기업의 법률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데서 더 나아가 외국에 한국의 법문화와 법률서비스를 수출하는 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에만 일임할 것은 아니다.[69] 법률시장 개척을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요 국가 어젠다로 삼아 충실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시점이다.[70]

정부지원 하의 輸出立國을 통한 외연적 경제발전에 성공했던 경험을 살려 역동적인 한국인의 기상을 세계에 다시 떨치고 새로운 형태의 한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국내 로펌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현지 R&D 기능 강화

단순 노동력이 아니라 첨단 기술로 중국에서 승부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기능이 필수적이다. 중국은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를 각종 우대정책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고급인력 양산을 통해 흡수하면서, 국제 R&D 센터기지로서의 입지를 강화시켜 가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 기업의 중국내 R&D 활동은 제

67) 양평섭· 구은아,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p.75.

68) 최근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 로펌 중 처음으로 중국의 반독점법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아 한국 기업이 외국 대기업과 합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화우는 한국 LS산전과 독일 인피니온(Infineon)의 한국 합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중국 반독점법 자문 업무를 수임, 중국정부로부터 합자회사 설립 허가를 받았다(뉴시스, 2009.12.2)

69) 법률신문, 2007.8.9.

70) 법률서비스의 수출에 성공한 나라로는 영국을 들 수 있다. 2006년 한국 법률시장 매출 규모가 1조 7,000억원 정도인데 영국의 상위 50대 로펌은 2006년 한 해에만 19조 3,053억원의 기록적인 매출을 올렸다. 1, 2위를 차지한 Clifford Chance와 Linklaters만 해도 각각 2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한국 전체 매출액을 초과할 정도이다. 영국 로펌의 성공은 바로 해외진출이 가져온 긍정적 효과로 분석된다.

품의 미세조정, 디자인 등을 현지 시장에 맞게 개조하는 개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금후로는 중국의 우수한 현지 인력을 활용하여 조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한 다국적기업은 모두 82개에 달한다. 미국이 32개로 가장 많고 일본이 18개, 대만이 5개다. 모토롤라의 경우 중국 내 18개 연구개발센터에 1000여 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개발투자에 25억위안(약 375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정보기술(IT) 분야가 전체의 70%인 58개에 달하고 정밀화학(9개) 생물의약(7개) 자동차 분야(5개)가 뒤를 잇고 있다.

중국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차별화된 기술력이다. 기술력의 원천은 R&D 센터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 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에 R&D센터를 현지화하는데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도 이러한 추세를 중시하여야 한다.[71]

중국 내에 R&D 센터를 설립하여 단순히 운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하느냐에 R&D의 성패가 달려 있다. R&D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수한 고급두뇌를 확보하여 충분한 실험설비나 장비를 제공하여 연구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이다. 또한,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보상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기본이다. 중국 내 R&D 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한국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자사의 역량에 맞게 운영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다. 물류·유통업 진출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면서 현재 중국의 생산체인이 중국의 빠른 경제성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기

71) 중국진출 초기 한국기업이나 일본 기업들은 자체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유출 될 가능성과 현지의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대부분 R&D센터는 자국에 두고 중국에서는 생산 혹은 조립만 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2000년을 넘어서면서 R&D에 대한 현지화 없이는 중국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중국으로 R&D센터를 대대적으로 이전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위한 개별기업들의 물류서비스 역량강화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인프라 개선과 규제 완화로 중국 물류의 분절성과 비효율성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물류 분야의 외국인투자 증가로 현대적인 물류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내 물류가 생산자에 의한 직접물류에서 제3자물류(3PL:Third Party Logistics)[72]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외자기업들은 중국 내수시장에 본격 진입하기위해 본격적인 물류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를 활용할 경우 물류비 절감뿐만 아니라 생산, 마케팅 등 핵심역량에의 집중이 가능하고, 물류관련 자산보유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는 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고 물류기업도 전문성이 높아져 물류체계가 선진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제3자물류 활용율은 아직 미국이나 일본, 유럽 수준인 70~80%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3]

한국 기업도 운송, 보관, 배송 등 물류 분야의 중국 진출을 서두름과 동시에 한국 기업을 포함한 중국내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물류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투자 급증 추세에도 불구하고 물류업 분야의 진출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외국 유수의 물류기업이 상당수 진출해 있는 가운데, 후발 주자로서 중국 물류분야에 진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중국의 물류 규정을 숙지해야 하는데, 아직 중국의 지역적 분절성이 남아 있고 지역별 물류 인프라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중앙의 규정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의 관련규정과 환경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향후 유망 진출분야로서 낙후한 중국의 창고업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내 제3자물류시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의 IT기술을 활용하여 첨단물류 설비를 도입, 물류의 IT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

72) 제3자물류(3PL:Third Party Logistics)란 화주기업이 내부 물류시설(자가물류)이나 물류 자회사(2자물류)가 아닌 별도 물류기업에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제3자 물류가 활성화되면 물류시장의 선순환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73) 한국무역협회, "한국 제조·무역·유통업체 등 화주기업들의 제3자물류 활용현황 조사보고", 보도자료, 2009.11.17.

3. 중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1) 무역분야의 대응방안

최근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중국내 비즈니스환경 악화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중국 당국이 외자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 축소와 감독 강화에 나서는 등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는 중국정부가 지난 몇 년 간 외국인투자의 성과에 대한 재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맹목적인 외자 유치가 초래한 부작용에 대한 반성과 함께 금후로는 선별적인 외자유치를 통해 외자 이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중국의 산업정책과 외자유치정책의 연계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와 에너지· 자원 절약, 환경보호 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기도 하다.[74]

이러한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과 수출 관련 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 특히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업종에 많이 진출해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도 목전의 경영환경 악화에 전전긍긍한 나머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경제의 고도화와 환경 개선이 가져다 주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국간 분업구조를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중국의 추격이 빨라지고 있는 전통 제조업에서는 기술적인 격차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가공 및 조립 중심의 산업생산구조, 가공무역중심의 수출구조, 외국인투자기업 중심의 생산 및 수출구조 등 중국의 특성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비즈니스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74) 양평섭, "중국의 수출 관련 정책 변화와 한중교역에 미치는 영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06. p.33.

첫째, 한·중 간 보완적 산업구조의 지속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양국간의 분업구조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등 후발자의 추격에 직면한 산업이나 기업이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전략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브랜드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로 기존의 분업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에서 한·중 무역관계를 고려할 때 부품 및 소재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거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중국산과의 경쟁을 회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대중국 수출대상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재의 대중국 수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75]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의한 대중국 수출유발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기업과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출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수출시장의 다변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중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1992년 3.5%에서 2005년에는 21.8%, 2009년에는 23.6%로 높아졌다.[76] 그 결과 한국의 수출은 물론 한국경제 전체가 중국경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

특히 일부 중간재의 경우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 내 수요산업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중국 수출에서 출혈수출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제품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높아질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수출시장을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77]

---

75) 한국 대중국 수출의 76%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50% 내외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기업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중국 수출의 25%가량이 중국기업으로 향하고 25% 가량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제3국 기업으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한국 대중국 수출의 56%가 가공무역을 위한 것이고 투자용 설비가 3.3%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중국 가공무역용 수출과 투자용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들의 가공무역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6) 파이낸셜뉴스, 2009.11.26.

77) 하태정, "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와 기업의 대응", 「LG주간경제」, LG경제연구원, 2005.p.46.

2) 대중국 투자 방안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투자와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에서 외국인투자제도와 환경은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 된다. 그러나 중국을 단순한 생산가공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투자의 경우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가 축소되는 것은 물론 각종 규제가 더해지고 있어 전반적인 투자여건이, 특히 연해지역의 투자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 진출에 앞서 기술적인 경쟁력은 물론 현지 마케팅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제조관련 서비스분야의 중국 진출 확대가 필요하다. 중국의 서비스시장 규모 확대와 개방에 맞추어 금융, 유통, 물류 등 제조업 지원 서비스분야의 진출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해외투자 지역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최근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와 비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임가공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 중국 진출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목적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경우 중국의 중서부지역 또는 동북지역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들 지역 역시 단순 임가공기지로서의 장점이 빠른 속도로 상실되어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동집약적인 업종의 경우 베트남, 동남아 등 중국 이외의 지역에 대한 투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 진출기업의 수익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중국의 무역정책과 외국인투자정책 변화는 중국을 단순한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진출한 중소기업의 중국 내 비즈니스 여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을 가공무역기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가공무역에 대한 우대 철폐로 원자재 조달에 있어 상당한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지법인의 수익성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 생존율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KOTRA,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중국 진출 기업 안정화를 지원하는 기구를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중국

에 진출한 노동집약적 업종 기업들의 경우 중국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금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진출 기업의 퇴출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춘 조직 강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78]

78) KIEP 북경사무소, "중국 서비스교역 발전보고 2006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제07-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01.30. p.86.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상품에 체화되어 제공되던 서비스가 점차 독립된 상품으로 공급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원거리 공급이 가능하게 되면서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서비스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비스의 국제무역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서비스무역의 확대는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제조업 등 타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킨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와 소비촉진 효과가 크고, 금융·보험 등 지식집약도가 높은 서비스산업은 고전적인 산업에 비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매우 크다. 이에 서비스무역의 확대와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는 곧 국민경제의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발판으로 인식되고 있다.

무역자유화의 기조와 함께 세계무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가 더욱 진전되고 서비스무역의 위상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의 서비스무역은 전체 무역에서 20%를 차지하지만, 서비스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 세계 부가가치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어 서비스무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서비스무역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경제의 서비스화를 통해 자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여타 선진국들과는 달리, 상품무역에 있어서는 흑자를 나타내고 있지만 서비스무역에 있어서는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한·중 양국에 있어 서비스무역의 강화를 위한 노력은 필연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한·중 양국은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경쟁을 통한 체질개선이 필수불가결하다. 이에 한·중 양국간의 서비스협정이나 FTA등을 통해 양국간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향후 대세계 서비스무역 완전개방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준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한·중 양국은 서비스무역에 있어서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비교열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상호 비슷한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문화적으로도 매우 근접한 위치에 있다. 이에 양국이 상호간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추

진함으로써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서비스무역 자유화로 경쟁이 강화되면, 한·중 양국의 서비스 산업에 효율적인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져 서비스무역에 있어서도 국제경쟁력이 점차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와 이러한 서비스가 결합된 양질의 상품을 경쟁적인 가격으로 양국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어 국민후생이 증대될 것이며, 재화무역에 있어서도 국제경쟁력이 더욱 강화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FTA 추진에서 서비스분야를 배제하는 전략을 취하여 왔으나, 홍콩과의 CEPA를 통해 홍콩 서비스기업에는 WTO 가입 약속에 비해 우호적인 개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1월에는 아세안과 「중·아세안 서비스분야의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한·중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의 비관세장벽 등 각종 수입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서비스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체결을 통해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시중, “한중 경제관계의 평가와 한중 FTA전망”, 「국제통상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7.12.

김영환, 『한·중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 육성 전략과 전망”,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제08-17호, 2008.8.19.

박동준, 박창현, 김영근, 박진호,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적 위상 변화와 향후 전망”, 『한은조사연구』 2009-12, ISSN 2092-4836, 한국은행, 2009.11.

박월라 등, “중국의 비즈니스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 연구보고서”, 「통상정보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10.

박문서, “서비스무역을 포괄하는 대외무역법 개정 방향”, 「통상정보연구」, 제6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4.25.

김번식, 박준, “한국 서비스업 고용의 특징과 개선방안”, 『Issue Paper』, 2009.10.29.

산업연구원, “서비스경제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e-KIET 산업경제정보」 제216호, 2004.7.30.

삼성경제연구소,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국제비교”, 『SERI 경제포커스』 제187호, 2008.4.7.

송기호, 「중국경제의 이해」, 청목출판사, 2008.7.25.

오성동, 기성래, “해운산업과 관련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해운물류연구』, 제39호, 한국해운물류학회, 2003.12.

윤기관, 왕하, “중국 서비스무역의 장기발전 계획과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부문 투자기업의 대응전략”, 「2008 경제학 공동국제학술대회」,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8.

윤창인, “한·중·일 FTA :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4-04,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2005.12.30.

이성준, “한국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학회지」, 제25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0.1.

하태정, “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와 기업의 대응”, 「LG주간경제」, LG경제연구원, 2005.3.23.

이창재 외,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4-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윤창인, “한·중·일 FTA :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경제·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12.30.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정책적 지원방안”, 『e-Kiet 산업경제정보』, 제386호 (2008-12), 2008.3.12.

_____, “중국의 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제371호 (2007-44), 2007.12.26.

_____,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비교 분석”, 『e-Kiet 산업경제정보』, 제222호(2004-43), 2004.9.22.

산은경제연구소, 중국 통신서비스 산업구조개편과 향후전망, 2008.12.

삼성경제연구소,,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국제비교”, 『SERI 경제포커스』 제187호, 2008.4.7

윤상하, “중국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비즈니스 기회”, 『LG 주간경제』, LG경제연구원, 2006.11.29.

이경환, 윤종욱, “서비스 기업의 경쟁우위를 위한 서비스 생산구조에 관한 연구”, 「경영논집」, 인하대학교 경영연구소, , 1996.

진흰,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중국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10

우진순, “중국 보험산업의 현황과 외국기업의 진출 가능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10.

양평섭· 구은아,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7.

조희영, “Uruguay Uound 금융서비스협상이 한국금융서비스개방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 『경영논총』, 제19호,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995.

최봉현, 김홍석, 조현승, 하봉찬, 『서비스산업의 미래와 경쟁전략』, 정책자료 2007-75, 산업연구원, 2007.12.
한국무역협회, “한국 제조·무역·유통업체 등 화주기업들의 제3자물류 활용현황 조사 보고”, 보도자료, 2009.11.17.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08년 세계경제 및 국별 전망」, 2007.12.
KIEP 북경사무소, “중국 서비스교역 발전보고 2006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제07-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1.30.
KOTRA,「중국의 물류시장 발전 현황 및 시사점」, 2005
_____,『주요국의 서비스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Global Business Report 080017, 2008.6.5.

[웹사이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http://www.oecd.org/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국제연합(UN), http://www.un.org/
국제통화기금(IMF), http://www.imf.org/
국제통화기금 국제수지통계, http://www.imfstatistics.org/bop/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 http://csf.kiep.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유럽연합(EU), http://www.europa.eu/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
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
통계청, http://www.nso.go.kr/
학위논문원문 공동이용협의회, http://thesis.or.kr/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http://tri.kita.net/
한국은행, http://www.bok.or.kr/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무역학과	학 번	20087724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우뢰	한문 于蕾		영문 YuLei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1247-4번지208호				
연락처	E-mail : meddy1979@hotmail.com				
논문제목	한글 한국 서비스무역의 중국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영문 A Study on the Korea situation of The Entring strategy to China for Service Trade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과 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 이용의 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 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 반대(○)

2010년 2월

저작자 : 우뢰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